

노량진(오전)	6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오후(4부)	5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4부(오후)	5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1년 5월 9일 (제1096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생각을 바꿔라

어떤 젊은이가 나에게 말했다. “목사님, 요즘은 못 먹고 못 사는 게 가난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게 가난한 거예요.”

젊은이의 말을 듣자니, 참으로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꼈다. 우리 때는 돈이 없어 못 먹고, 못 입고, 못 배우는 것을 가난이라고 말했다. 의식주만 해결되어도 여유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면 가난하다고 느낀다니... 그러니 다들 자신을 빈곤층이라고 말할 수밖에. 하고 싶은 것은 끝이 없으니까. 문득 성경 말씀이 떠오른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딤후6:6).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내게 와서 상담하기를 “제가 이제 개척을 해서 가진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힘이 많이 드네요.”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강대상은 있습니까?” 했더니,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럼 장의자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는 달았습니까?”, “네, 그건 기본이죠.” 나는 “목사님, 처음부터 해놓고 싶은 거 다 해놓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이 가졌는데 왜 없는 것만 보십니까? 그건 욕심입니다.”라고 말해줬다.

욕심이란 넣어도,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주머니와 같다. 그것을 다 채우려고 사람들이 안달을 하고, 그것을 채우려고 불법도, 거짓도, 험한 일도, 나쁜 일도 하는데, 아무리 해도 그 주머니는 채울 수 없다. 계속 늘어날 테니까.

빈곤층에서 부유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쉽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하고 싶은 것을 못해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음에 감사하면 바로 행복해지고 부유해진다.

또 하나, 상대적 빈곤에서 해방되면 내가 상당히 부자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행복의 커트라인을 없애면 행복이 찾아온다. 같은 것을 가지고도 불행하게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부자로 사느냐는 내 생각에 달려있음을 알아.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

너를 보증해줄 사람이 있느냐?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길 원한다. 사랑 받길 원한다. 신뢰 받길 원한다. 그러나 이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고 쌓아가야 하는 것이다.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예배를 통하여 ‘나를 대신하여 내 가족을 맡아줄 사람이 없다면 인생의 실패자라고 말씀하셨다.

“목회 초기에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금융 쪽에 잘 나가던 친구였는데, 나를 찾아와서는 ‘내가 중한 병으로 오래 살지 못할 거 같다. 내 가족을 부탁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래 고민하며 생각해왔는데,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학창시절에 그 친구를 음모양모로 많이 도와왔던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듣지 내가 먹고 마시고 거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사람을 얻었다고 자부합니다.

‘나는 그를 보증해.’라고 할 때, 보증(保證)한다는 것은 곧 책임져준다는 뜻입니다. 한자를 살펴보면, 보(保)는 책임질 보, 지켜줄 보입니다. 증(證)은 증거 증, 증명할 증입니다. 보(保)는 사람 인(人) + 어리석을 때(呆)로 이루어져있고, 증(證)은 말씀 언(言)과 오를 등(登)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곧 어리석은 사람을 말로 보증하여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한다는 의미라 할 것입니다.

사실 보증을 서는 일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빚보증 잘못 썼다

라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설교할 땐 어디로 들었는지 다 흘려버리고 당하고 난 뒤 찾아와 살려 달라 아우성이니 낸들 어찌겠습니까?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도 여러분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은 가슴 깊이 새기고 또 새겨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절대 보증을 서지 않습니다. 내가 보증을 서는 경우는 하나님의 일일 때에 한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증을 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자일 경우입니다. 나를 보증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복종의 복이지만, 내가 보증해줄 사람이 있는 것 역시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

보증(保證)은 책임져준다는 뜻이다

봉우이초석 목사

나는 그에게 가장 귀한 친구 예수를 소개하고 돌려보면 뒤, 한강 다리를 걸으며 정말 생각이 깊었습니다. 머리를 해머로 한 대 얻어맞은 기본이랄까? ‘그렇다면 나는 과연 내 가족을 책임지고 맡길만한 사람이 있는가?’ 당시 우리 교인들이 3천명에 이르렀고, 내 친척, 친지, 친구들도 많았지만, 아무리 곱씹어 보아도 마땅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 나는 인생을 헛 살았구나! 저 친구야말로 인생 성공자 아닌가!’ 나는 그때부터 사람을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잠11:30)는 말씀에 따라 전국과 전 세계를 다니며 사람을 얻는데 주력했습니다. 지금은 세계 어디를 가

가 때가망신하는 일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함부로 보증을 서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잠11:15).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잠17:18).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이 되지 말라”(잠22:26). 지혜 없이 보증을 서다가는 네 신세까지 망친다고 똑같은 말씀으로 두 번씩이나 강조하였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불모 잡힐찌니라”(잠20:16, 잠27:13).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절대 보증은 서지 말

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줘야 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기에 죽도록 충성합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보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하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건만(고후1:21~22), 그 믿음과 신뢰에 보답하지 못하고 성령을 소멸해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보증 받는 사람, 국가에서 보증하는 사람, 목사에게, 상사에게, 이웃에게 보증 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겨 한사람도 올무에 걸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주일예배(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0% 대면예배)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10시 3부: 오후 2시 4부: 오후 5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살전5:19)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살전5:19). 이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시기에 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살전5:23). 아버지가 외국에 장기 출장을 가게 되면 남은 가족들에게 돈을 주고 갑니다. 돈만 있으면 편하게 살고,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돈을 노리는 자들이 많으니 주의하고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라고 당부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하시면서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요14:16). 그런데 호시탐탐 도적들이 돈을 노리듯,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악한 것들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세상 것들로 유혹하여 성령을 소멸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친 자들이 가난과 병과 저주와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우리 삶이 흠 없이 보전되는데, 성령을 소멸했으니 엉망진창이요, 너털너털 흠집투성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자위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힘들게 살고 못살고 아프길 원합니까? 하물며 당신의 독자까지 죽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러겠습니까? 이는 만든 자의 말을 무시하고 버렸기에 다 차려놓은 밥상도 못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고로 핑계 댈 일이 아니라 깨닫고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돈을 잃은 자나 성령 소멸한 자나 같다

여러분, 성령이 소멸된 자는 돈을 잃어버린 자와 같은 신세입니다. 지갑은 명품인데, 지갑은 그럴싸한데 지갑이 비어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니 궁색하게 살아야죠. 친구를 만나도 신발 끈을 오래 묶으면서 누가 돈을 내지 않나 살피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모든 면에서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또 성령을 소멸한 것은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총알이 있어야 꿈을 잡든지, 여우를 잡을 텐데 총알이 없으니 되레 그것에 쫓기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와 귀신들은 성도라는 이름에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고전4:20).

성령을 소멸한 자는 배터리가 떨어진 핸드폰을 들고 있는 자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최신형, 고가의 핸드폰이라고 해도 배터리가 떨어지면 그 핸드폰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도, 걸 수도 없고,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하나님과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지라 구할 수도, 도움을 청할 수도,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 그 신세가 어떻게 됩니까? 또한 성령을 소멸한 자는 전기가 나간 집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전기가 나가면 온 집안이 껌 껌해서 앞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 .



총회장 이초석 목사

어저서 다치고, 도적이 들어와서 다 훔쳐가고, 때리고 해를 입혀도 잡을 수가 없듯이 성령을 소멸하면 귀신의 밤이 됩니다. 그놈이 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다투게 하고, 아프게 해도 속수무책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불 꺼진 삶이 어찌 되는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제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마12:43-45). 불이 꺼지니까 그 집에서 나갔던 귀신들이 열씨구나 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병들고 가난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영혼의 불, 성령이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번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자동차를 썼으면 기름

을 채워놓듯, 핸드폰을 저녁에 충전하듯 성령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며 기적을 행하신 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기도할 처소를 찾은 이유도 바로 그것이며, 제가 집회에 나가면 하루 7시간씩 기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충만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고 해도 기도가 끝난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고 귀신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난 사람에게

는 기대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성령을

소멸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배터리가 나

간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서 신형핸드폰이라고 폼 잡고

있습니다. 총알도 없는 빈총을 적을 향해 겨누고 있습니다. 내가 이래봐도 목산데, 장론데, 집산데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부한체하여도 아무 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체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잠13:7).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 충만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엡6:18)라고 말씀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방언기도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므로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 불안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8:26). 미국에 사는 어느 성

도가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갑자기 방언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하도 세게 나오니까 차를 세우려고 우측으로 핸들을 틀었는데, 바로 그 순간 앞의 차부터 여러 대가 연이어 추돌하는 대형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성도가 우측으로 핸들을 꺾지 않았더라면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인정했습니다.

빈총을 든 자나 성령 소멸한 자나 같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압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됩니다(요14:20).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또한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행1:8). 그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고, 바울의 앞치마만 가져가도 귀신이 떠난 것은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귀신들이 저를 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는 것은 제 안에 계시는 성령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요16:8),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며(갈5:22-23), 다양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고전12:4-11). 기도의 회복이 성령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4:7),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3)…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는 성령충만입니다. 그러니 늘 기도하여 이 열쇠가 녹슬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합시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엡5:17-18).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객원컬럼 ::

:: 용달샘 ::

아는 게 없으면 몸 고생만?

정초(庭招)에 있었던 일이다. 새해 인사를 드리러 처가에 들렀다. 그런데 이게 웬 일? 집을 나서려는데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에 ‘딱’ 하니 노란색 주차금지 경고장이 붙어있는 것이 아닌가! 스티커를 제거할 요량으로 다시 집에 올라와 칼과 물통, 그리고 화장지를 챙겨 내려갔다. 영하 15도라 날은 춥지요, 거기에 겨울바람은 썰썰 불지요. 스티커는 아주 빈틈 하나 없이 ‘확실히’ 붙어있었다. 게다가 뭐를 사용했는지 긁어도 긁어도 떨어지지 않지요... 오만상을 쓰며 스티커를 긁었는데도, 이게 점점 얼룩만 번질 뿐 도통 진척이 없는 것이었다. 커지는 얼룩과 함께 감정 또한 롤러코스터를 탄 듯 요동을 쳐댔다.

‘아니, 붙어도 이렇게 딱 한가운데 붙어 놓나. 떼기 쉽게 붙여 놓으면 좀 좋아?’ 했다가도. ‘아냐, 내 마음에 붙어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이와 같을 거야, 내가 깨달을 거라도 있나?’ 하다가도. ‘거 참, 명절인데 좀 봐주시지, 해도 해도 너무들 하시네. 진짜!’ 애꿎은 경비아저씨들 탓을 해가며 투덜투덜...

결국 30분이나 벽벽 긁어대도 얼룩이 지워지지 않자, 하는 수 없이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인터넷을 검색했다. ‘주차 경고 스티커 제거 방법’

아빨싸, 그런데 이게 뭐람? 칼이나 가위로 긁으면 안 된단다. 유리창에 스크래치가 난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냥 스티커에 물 들어부어 봤잖아 아무 소용없고 수

건을 스티커에 댄 후, 그 위에 뜨거운 물을 붓고 5분쯤 기다렸다가 떼던가, 아니면 에프킬라를 뿌려놓고 기다렸다가 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머리가 뭐 하면 손발이 뭐 하다고... 이이고 두야!

인터넷에 사시는 지식인이 알려준 방법대로 에프킬라를 듬뿍 뿌려놓고 얼마간 기다린 후에 쓱 문지르는데, 이게 웬걸? 너무나 쉽게 닦이는 것이 아닌가! ‘아, 나는 지금까지 영하 15도 칼바람 맞으며 뭔짓을 한 걸까?’ 그러게 내 백성이 지식 없이 망하는 법이다, 지식이! 모르면 물어보는 것이 지혜요, 아는 것도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현명한 처사인 것이다. 아차! 그리고 보니 내 이름이 현명인데 이름 값도 못했네, 그러?

‘주여, 부족한 중 때문에 그간 속 끓이시느라 얼마나 고생이십니까요!’

아는 게 없으면 몸이 고생한다. 그런데 단지 몸만 고생일까? 그 인생도 고달프고, 그와 함께 한 사람까지 고달파진다. 그 영혼의 끝은 또 어떠할까!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베후1:2)라고 했다. 이처럼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법이다. 그래서 알아야 자유롭다. 알아야 누리는 법이다. 모르니까 속고, 모르니까 억압받고 끌려다니는 것이다.

지금은 안일함에 빠져들 때가 아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호6:3)!

신현명 목사

벤허(Ben-Hur)

“예수의 추종자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허튼소리를 하는데, 우리가 그들의 개념을 한 번 깨볼까요?”

“그래, 기독교의 신화를 깨줄 필요가 있지. 사람들이 예수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

이 대화의 주인공은 로버트 잉가솔(Robert Ingersol)과 루 월리스(Lew Wallace)이다. 월리스는 남북전쟁의 영웅이며 터키 대사를 지낸 바 있는 유명한 장군이며 동시에 문학가였고, 그의 친구인 로버트 잉가솔은 당시 미국에서 꽤 유명한 무신론자로 인류를 예수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 인류에게 공헌하는 길이라 생각한 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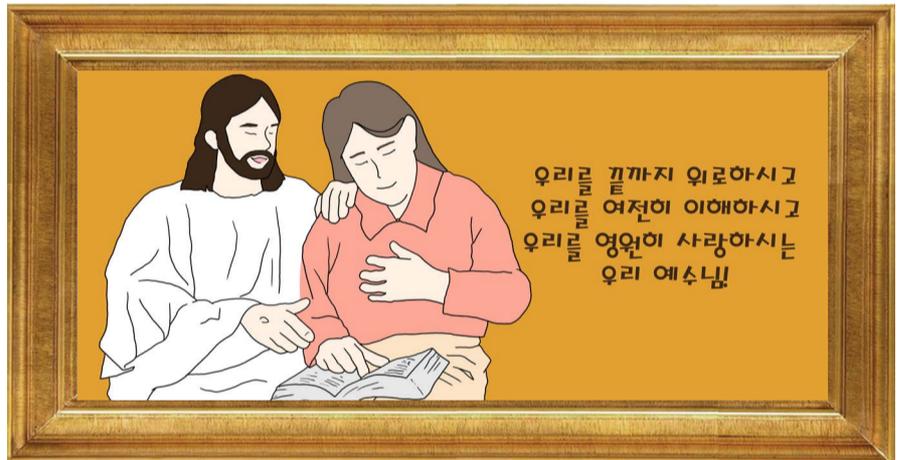
월리스는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자료를 수집했고, 직접 성지까지 다녀오기도 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허위라는 것을 주장하는 근거를 찾아 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

나 자료를 모을수록, 예수에 대해 알면 알수록 차츰 변화되어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굳어 있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삶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책의 제1장을 마치고 제2장의 첫 페이지를 쓰다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실로, 진실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부르짖게 된다.

월리스는 자신을 회개하며 책을 써내려갔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벤허(Ben-Hur)’다. 이 소설은 출판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차례 연극·영화화되어 인기를 끌었다.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다. 진실은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예수는 진리다!

예수중심편집실



:: 세상을 보는 창 ::

:: 낮은 울타리 ::

5대 1의 법칙을 아십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마22:34~40)에 의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즉 ‘사랑의 관계’이다.

그런데 ‘관계의 성공’은 쉽지 않다. 누구에게나 이웃과의 관계를 잘못하여 상처받고 고통 받은 경험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관계를 통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행복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미국 워싱턴대학교 심리학과 존 고트먼 교수가 연구한 내용을 보면 ‘5:1의 법칙’이 있다. 부부의 대화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 부부가 5년 안에 불행하게 이혼할 것인지, 아니면 행복한 부부생활을 지속할 것인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고트먼 교수가 이야기한 이혼 적중률이 95%였다고 한다.

고트먼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70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의 대화를 조사했는데 5:1 법칙은 매우 간단한 것으로, ‘칭찬과 비난의 비율’에 있었다고 한다. 부부 대화 중에 칭찬과 비난이 5대 1 정도인 부부는 10년 후에도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칭찬보다 비난의 비

율이 높은 부부들은 이혼하거나 불행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뷰 기사에서 보게 된 36년간 외교관 생활을 했던 김하중 전 중국대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김하중 전 대사는, 외교관 서로가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외교는 말로 승리하면 안 되고 내가 승리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한다. 외교는 승부가 50:50이 되어야 하고 상대방이 51:49로 이겼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잘하는 외교라고 했다.

고트먼 교수의 5:1법칙의 칭찬과 비난의 비율이나 50:50의 비율을 가지되 상대방이 51:49로 이겼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외교 기술이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고 기술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정과 직장, 교회생활에서 사랑을 담은 구체적인 칭찬은 칭찬 시너지를 우리 생활에 순환시켜 사람들 사이에 성공적인 관계를 맺도록 돕고, 관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인 공동체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져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5월을 맞아 관계의 성공으로 어디서나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이정금 전도사

하나님의 큰 그림

몇 달 전, 저는 제가 원하는 외국계 기업에 이력서를 넣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서류 평가에서 통과해 1차 면접도 보게 되었고, 최종 2인으로 뽑혀 최종 면접까지도 가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기업조사와 기도로 준비했던 회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붙여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다. 저는 자신감을 점점 잃었고, 떨어진 자신감이 취업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매주 본 예배와 대학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저의 믿음과 자신감을 회복시키셨고, 분명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대학부 안에서 중요한 예배들을 앞두고 있었습다. 바로 대학부 부활절 헌신예배와 이 시대 목사님 초청예배입니다. 저는 대학부 안에서 영혼들을 맡은 팀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취업에 떨어진 덕분에(?) 두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며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시대 목사님 초청예배를 드리고 이틀 후 월요일,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

어났습니다. 바로 몇 달 전 제가 가고 싶었던 회사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회사일이 많아서 한 명을 더 뽑아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났다면서 말입니다. 저는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채도 잘 나지 않는 회사에서 한 명을 더 구한다니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전주에 제가 이미 다른 기업 인터뷰와 시험을 보았기 때문에 조금만 연락이 늦었더라도 저는 이미 다른 회사와 계약서를 썼을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몇 달 전 그 회사를 떨어트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목사님 초청예배와 부활절 예배를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역시나 내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기도 응답이 더디신가요? 혹은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셨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큰 그림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할 때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장수정

:: 성도간증 ::

:: 귀를 기울이세요 ::

주님의 풍성한 은혜



먼저 주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시대를 영적으로 이끄시는 사도이 초석 총회장 목사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나온 30여 년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치며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말씀 가운데 목사님과 동행한 것이 주님의 은혜고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년퇴임 후에도 하나님께서 일터를 주셔서 중요 국가사회기반 인프라시설의 안전진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에게는 가혹하고 타인에게는 너그러우며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채찍질하고, 하루 1,440분을 분 단위로 시간 관리하면서 부지런히 매사에 최선을 다하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잠16:32). 하루를 새벽 미명에 기상하여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열심히 운동하며 아침을 힘차게 열어갑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항상 '무지는 죄'라고 하시고, '배우기를 게을리 하는 개인이나 회사나 국가는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세계열강들은 4차 산업, 첨단산업, 우주산업 등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치열하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의식 가운데 저는 항상 배움을 즐기면서 편안하길 거부하고 틈틈이 틈을 내어 중국어를 즐겁게 배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외국인 검정시험인 5급 시험을 꼭 합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지식을 공유하길 원합니다. 외국어 배움의 지름길은 우리가 콩나물을 키울 때 매일 물을 주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콩나물이 자라듯, 꾸준히 쉬지 않고 매일 매일 반복 숙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주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30대 후반에 수도권에 있는 조그마한 땅을 구입해놓은 것이 정부의 토지수용에 따라 제 생애 가장 많은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감사하였습니다. 특히 권사인 집사람이 먼저 십일조 이야기를 꺼내 하나님께 드리자고 하였을 때 기뻐하며,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심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었습니다(말3:10).

더욱이 감사함은 부족한 사람을 중고등부 부장으로 임명하여주셔서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총회장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중고등부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목사님, 선생님 및 학생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며 봉사할 수 있어 감사

드립니다(계2:10). 오히려 학생들로 인하여 제 자신이 많은 것을 배우고, 또한 제 인생의 축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자기 몸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천하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사님 말씀의 뜻이 살아가면서 점점 더 크게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 가서 만보 걷기 운동하면서 어르신들과 마주치며 즐겁게 체력단련을 하고, 매년 종합건강검진을 받아 체크하면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며,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잘 보존하는 것이 나와 가족을 위한 길이며 기도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가 중고등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를 생각하면서 장차 대한민국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이 참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되어 열강 중에 우뚝 서는 세계적인 인물로 각 분야에 명성을 높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길 기도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믿음과 지혜를 받아 정치, 경제, 사회, 체육, 문화, 언론계 및 재계 등 각 분야의 수장이 반드시 우리 예수중심교단에서 나올 것을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항상 중고등부와 함께 하시는 총회장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부족하지만 여생을 죽도록 충성하며 그날의 상을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중고등부 부장 박한규 장로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 생활 속의 잠언 ::

끝이 있기는 할까요?

국경을 넘나들며 출장을 다녔던 시절이 언제였나 싶고 서울과 지방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사업 준비에 여념 없던 순간들이 언제였나 싶습니다.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고 상가를 취득하면서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은 상상을 초월하며 갚을 길도 끝이 없어 보입니다.

온갖 언론 매체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소식들은 희망을 찾기 어렵게 합니다. 줄어드는 통장의 잔고를 채워보려고 미국 주식 사이트를 열어두고 밤을 새워보기도 하고, 사업장 홍보를 위하여 거리로 나가기도 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절을 살다 보니 위로나 격려의 말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고 심각할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음은 참으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깊은 밤 꿀방에서도, 사람 없는 동네 야산을 산책하면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며

살고 있습니다. 깊은 밤 문득 잠에서 깨어나도, 짙은 고독의 시간 가운데서도, 암울한 절망의 순간에서 갈 바를 잃고 헤멜 때도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위로 받을 수 없는 놀라운 힘이 되어줍니다.

힘이 되어주시고 삶의 능력되어 주시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끔 가져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시절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에 4복음서를 읽어보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돈 탈탈 털어서 구제도 해보고 싶고, 복음을 전하는 전단지들을 만들어 동네 곳곳에 돌려보고도 싶습니다. 위로가 되어 주시고 늘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생각만으로 함께하는 자녀이기보다는 생각한 것들을 행동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생각의 끝이 있기는 할까요? 이제는 주님 향한 사랑에 대한 생각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리

고 주님께 더욱 집중하며 스치듯 지나가는 설교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여러 번 되새기면서 성경책을 펼치고, 통장의 잔고들을 모아보며 복음을 담은 전단지들을 만들어보려 합니다. 시골로 보내주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지만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시골 탈출을 꿈꾸며 뒤척거리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회를 인간의 생각으로 덮어버리고 다시 또 '내가 할 수 있다'는 불순종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죽이는 순종의 삶은 죽는 날까지 버릴 수 없는 어려운 숙제임을 알면서 '나'를 죽이는 긴 기도의 시간과 말씀의 묵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끝이 있기는 할까요? 이제는 순종하는 삶의 종착역에 다다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지유 집사

lovelyactor@naver.com

오늘도 신앙 점검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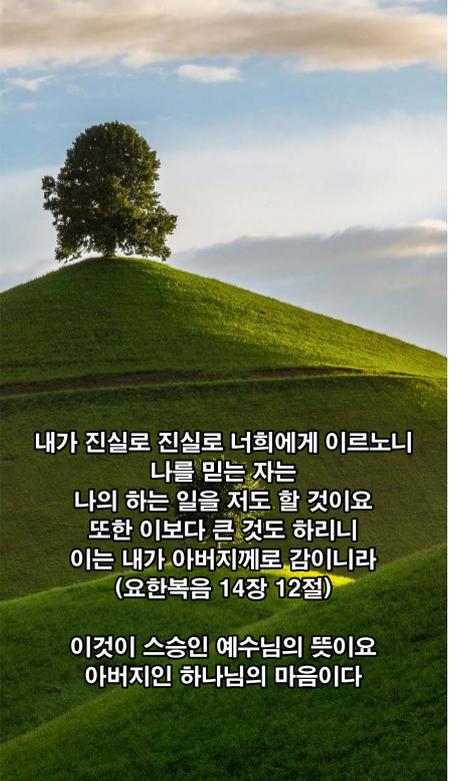
최근 일하고 있는 방송국에서 방송 사고를 내고 시말서를 썼다. 아직도 그 방송 사고를 생각하면 심장이 떨리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자괴감이 든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 가니 분명 몇 가지 전조증상과 함께 경고가 있었지만 난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또, 시간이 없다는 핑계, 늘 자주 하는 일로 여겨 점검에 최선을 다하지 않다가 사고가 생기고 말았다.

이 사건이 발발한 순간 가장 먼저 생각난 말은 총회장 목사님의 설교, '점검 부재는 사고의 원인이다'였다. 한 번 실수를 하고 나니 그동안 1편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 나를 도와 최선을 다해준 스태프들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내 방송을 시청해 줄 시청자들에게도 미안했다. 그리고 좋은 영상이었는데 빛을 발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나는 비싼 수업료를 내고서야 '수리형'이 아닌 '점검형 인생'으로 재탄생된 것이다.

비단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점검은 참으로 중요하다. 아침저녁으로 기도하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성경을 주기적으로 읽고 묵상하여 성경 속 인물과 나를 거울처럼 비교해보고 점검한다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연속일 것이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점검은 '부지런함의 산물'이라고 하셨다. 맞다.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야 잘할 수 있다. 부지런하지 않은데 어떻게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볼 수 있으며, 수요일예배, 구역예배, 주일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부지런하지 않은데 어떻게 영혼을 관리하고 복음을 전하러 나갈 수 있겠는가?

발명의 아버지 토마스 에디슨은 이런 명언을 남겼다. "변명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고 못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이다." 우리 핑계대지 말고 내 신앙생활, 내 가정생활, 내 사회생활의 점검을 미루지 말자. 진짜 시간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뿐이다.

송현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

이것이 스승인 예수님의 뜻이요 아버지인 하나님의 마음이다